

레바논 대폭발 질산암모늄 세계 수만곳 산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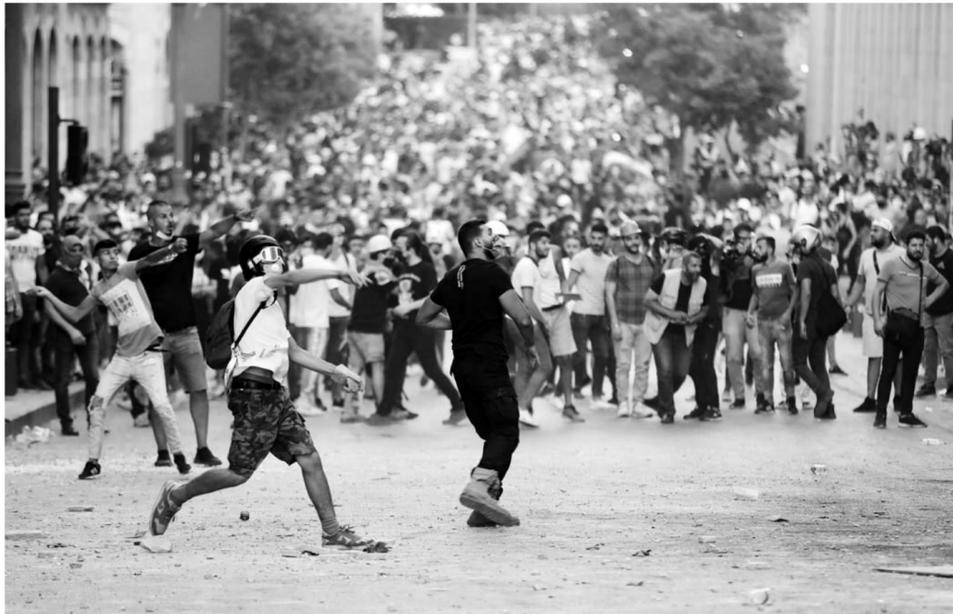
호주·프랑스 등 공장에 대량적 예멘·인도 등지에서 사실상 방치 최근 100년간 폭발사건 70차례

레바논에서 일어난 대형 폭발 참사가 머지않아 다른 나라에서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나오고 있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레바논 참사를 초래한 것으로 추정되는 다량의 질산암모늄이 전 세계 각지에 안전하지 않은 상태로 쌓여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 소방연구업체 '파이어 사이언스 앤드 테크놀로지'의 비토 바브라스카스 회장은 전 세계에 질산암모늄이 안전하지 않게 보관된 장소가 수만 곳에 이른다며 설명했다. 그러면서 "베이루트 참사와 비슷한 일이 또 벌어지는 건 시간문제"라고 우려했다.

만2000t이나 저장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이는 만약 폭발하면 뉴캐슬 지역 전체를 흔적도 없이 지울 수 있는 물량이라고 현지 시드니모닝헤럴드가 설명했다. 프랑스에서도 환경단체들은 보르도 인근에 자리한 비료 회사 아라의 공장이 폭발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공장은 질산암모늄을 2만t까지 저장할 수 있다.

내전 중인 예멘 남부 아덴항에도 질산암모늄 4900t이 컨테이너 130개에 나뉘어 3년간 방치됐다는 보도들이 전날 나왔으며, 최근 인도 남부 첸나이 항구에선 최소 5년간 보관돼온 질산암모늄 약 700t이 발견되기도 했다. 실제로 2013년엔 미국 텍사스주(州) '웨스트비로공장'서 질산암모늄 약 30t이 폭발해 15명이 사망하고

160명이 다쳤다. 바브라스카스 회장은 "지난 100년간 질산암모늄 폭발 사건이 70회나 있었다"며 "모두 화재와 보관 결함이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폭발을 예방하기 위해 질산암모늄을 가연성 시설에 보관하지 말고, 보관 장소에 다른 물질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정부 책임져라” 대규모 폭발 참사가 발생한 레바논 베이루트 중심가에서 9일(현지시간) 정부의 태만을 질타하고 책임을 묻는 시위대가 이틀째 시위를 벌이다 군경과 충돌하고 있다. /연합뉴스

질산암모늄은 실온에서 흰색 고체로 존재하는 화확물질로 주로 질소 비료로 쓰인다. 대부분 환경에서 안정 상태를 유지하지만, 고온 및 밀폐 용기에 놓이거나 가연성 물질과 닿으면 쉽게 폭발해 폭약 원료로도 활용된다.

레바논 당국은 지난 4일 참사는 베이루트 항구 창고에 6년 동안 보관된 질산암모늄 약 2750t이 폭발해 벌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베이루트 참사 후 호주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현재 뉴사우스웨일스(NSW) 주 뉴캐슬에 있는 질산암모늄 생산공장에 이 물질이 최대 1

전세계 코로나19 확진 2천만명 불과 43일만에 1천만명 증가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2000만명을 넘어섰다.

국제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 집계에 따르면 10일 오전 8시(GMT 9일 오후 11시) 전 세계 누적 코로나19 확진자는 2000만331명이다. 누적 사망자는 73만3139명으로 집계됐다.

확진자 수가 2000만명을 넘은 것은 중국 우한의 정체불명 폐렴이 세계보건기구(WHO)에 보고된 작년 12월 31일 이후 7개월여 만이다. WHO가 확산의 심각성을 인정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한 올해 1월 30일을 기준으로 약 반년만이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최근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누적 확진자는 지난 6월 28일 1000만명을 넘어선 뒤 25일 만인 지난달 22일 1500만명으로 폭증했다. 이후 나흘마다 100만명씩 늘어났다. /연합뉴스

美 안보보좌관 “中, 트럼프 대선패배 원해...사이버 공격 관여”

중국·러시아 선거개입 노력 지목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9일(현지시간) 중국과 러시아, 이란이 오는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미국의 선거 인프라를 표적으로 삼는 등 선거에 개입하려 한다고 경고했다. 또 “그나라 지도자가 조 바이든을 선호하든, 도널드 트럼프를 선호하든 이는 중요치 않다”며 “우리는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를 외국이 결정하도록 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터무니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미 정보당국인 국가보안정보센터(NSC)가 지난 7일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실패를 바라고 러시아는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폄하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발표한 성명에 대한 반응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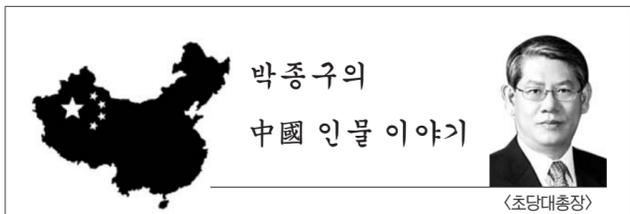
미국은 2016년 대선 때 러시아 측이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돕기 위해 소셜 네트워크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러시아의 선거 개입 우려와 관련한 질문에 새롭게 부활할 제재가 많지 않을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를 매우 가혹하게 대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러시아 스파이 추방, 외교시설 폐쇄 등을 거론한 뒤 “우리가 러시아를 처리하기 위해 남겨둔 것이 많지 않다. 그럼에도 우리는 러시아에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이날 방송 출연은 지난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가 회복한 후 공개석상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그는 “이것은 끔찍한 바이러스이고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줬다”며 “평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내 말은 이것이 중국에서 왔고, 이후 그것과 싸워왔다는 것”이라고 중국을 겨냥했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中國 인물 이야기

〈초당대총장〉

〈244〉 효종
효종(孝宗, 1127~1194)의 이름은 조신으로 남송 왕조의 2대 황제다. 고종의 뒤를 이어 왕조의 기반을 구축한 명군으로 금과의 강화조약으로 장기간 양국의 화평을 이끌었다. 북송 태조 조광윤의 차남인 조덕방(趙德芳)의 6세손이다. 수안회왕 조자칭의 아들이다. 고종은 아들이 어려 죽어 후사가 없었다. 조신을 태자로 삼아 1162년 6월 양위하였다. 금의 해릉왕은 남송을 타도하기 위한 벌송(伐宋) 작전을 진두지휘했다. 수많은 종친과 중신을 학살한 폭군으로 대송 전쟁 중에 부장인 완안원의에게 살해당했다. 동경 유수인 황족 완안옹이 5대 황제인 세종으로 즉위했다. 그는 남하한 금군을 철수시키고 남송과의 새로운 관계 간 화평이 유지되었다. 남송은 안정된 대외 관계를 바탕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크게 발전하는 계기를 낳았다. 주희, 진덕수, 문천상, 육유 등 뛰어난 학자, 문인, 예술가들이 다수 배출되었다. 장강 등 풍부한 수자원을 바탕으로 농업생산이 크게 늘어났다. 상공업도 활성화되었다. 운수교통도 발달했다. 수도 임안(현 항주)의 번영은 과거 북송의 수도 개봉을 능가할 정도였다. 동전만으로는 늘어나는 화폐수요를 충족할 수 없어 지폐가 유행하였다. 지폐와 함께 은(銀)을 화폐로 사용하는 빈도가 점점 늘었다. 회자(會子)라는 어음이 유통되어 상공업 진흥에 크게 기여했다. 효종의 국경운영은 금과의 화평을 세중으로 즉위했다. 그는 남하한 금군을 철수시키고 남송과의 새로운 관계 간 화평이 유지되면서 내치를 안정시키는 것을 우선으로 하였다. 금의 여러 차례 남침

남송 2대 황제...왕조 기반 구축한 명군

설정에 나섰다. 이와 같은 정세 변화속에서 효종이 즉위한 것이다. 효종은 상실한 하북 지방의 회복을 염원해 장준을 추밀사·도독강화동서군마에 임명했다. 장준은 현 남경에 해당하는 건강을 근거지로 삼아 북벌을 감행해 안휘성 속주를 탈환했지만 뒤이은 전투에서 패했다. 주전파가 밀리고 주화파가 다시 힘을 얻었다. 금의 세력은 변방인 상경 회릉부에서 연경으로 국도를 옮겨 중원의 정치 기반을 강화했다. 골칫거리인 거란족의 반란을 무마하는데 공을 들였다. 주모자를 제하고는 관용을 베풀어 빠른 시일내 내란을 수습하였다. 효종도 더 이상의 싸움을 무익하다고 판단해 주화파에 힘을 실어주었다. 결국 1165년 송·금 화약이 체결되었다. 종전처럼 국경선은 회화로 하되 기존의 군인 관계를 숙질 관계로 재정립했다. 세폐는 은 25만냥 비단 25만필을 20만냥, 20만필로 줄였다. 종전의 세공(歲貢)을 세폐(歲幣)로 바꾼 것은 송이 금에 대한 진공이 아니라는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금은 송나라 조상의 능묘가 있는 지역의 반환을 거부했다. 금 사신이 국서를 가지고 남송을 방문하는 경우 남송 황제가 일어나 받도록 돼있는 것을 고치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남송에게는 다소 유리한 강화조약이었다. 이로써 1206년 양국이 대립하기까지 약 40년

으로 국력의 소진이 컸고 망명 정부격인 남송 왕조의 기반도 취약했다. 효종의 치세는 큰 사건없이 진행되었다. 주화파와 주전파가 갈등을 빚기는 했지만 대금 화평 기초 자체는 흔들리지 않았다. 효종은 내심으로는 고도 회복을 희망했지만 주전파였던 군사적으로 금에게 이길 수 없음을 잘 인식한 현실론자였다. 문제는 황실 내부에서 시작되었다. 효종이 퇴위하고 황태자인 3남 조돈에게 양위하였다. 빈약한 장남이 요절하자 차남 대신에 조돈을 황태자로 삼아 재위를 넘겨주었다. 아버지 고종을 본따서 살아 있는 동안 양위하기 위해 부친이 죽은 2년 후 아들에게 양위한 것이다. 후임인 광종은 우유부단한 인물로 주전, 주화에 대한 특별한 주관이 없었다. 암울한 황제로서 황실내 여자들간의 암투가 심해졌다. 송사에는 광종이 “후궁의 싸움은 안에서 제대도 다스리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광종비인 이황후는 질투심이 심한 여자로서 두 살 연상인데, 광종의 후궁인 황귀비를 죽이기도 했다. 남편이 태상황으로 물러난 효종과 만나지도 못하게 하였다. 외척을 대거 중용하는 등 국정에 깊이 개입하였다. 결국 고종의 황후인 오씨 하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남송에게는 다소 유리한 강화조약이었다. 이로써 1206년 양국이 대립하기까지 약 40년

2021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사랑과 감사의 66년
1954~2020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2020학년도 후기 대학원 신입생 추가모집

학 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 열	모 집 단 위		모 집 인 원	
	학 과	수 시	정 시	
인 문 사 회	신 학 과	30	15	
	한국어교육학과	2	2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교정행생교육상담학 전공)	31	3	
사 법	유아교육과	7	3	
예 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23	6	
총 계		93	29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교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교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학부 전형일정
수시모집 · 원서접수: 2020. 9. 23(수) ~ 28(월)
· 전 형 일: 2020. 10. 12(월)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1. 1. 7(목) ~ 11(월)
· 전 형 일: 2021. 1. 18(월)

대 학 원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 학 원	과 정	모 집 학 과	모 집 인 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00
		목회학과(D.Min.)	0
		유아교육학과(D.Ed.)	0
일반대학원	석사	신학과(Th.M.)	0
		유아교육학과(M.Ed.)	0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0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평생교육학과(M.Ed.)	0

■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20. 8. 5(수) ~ 14(금)
· 전 형 일: 2020. 8. 19(수)

입학문의 ▶ 학부 062) 605-1114 / 대학원 062) 605-1115

1100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1길 36-1